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참간 30주년 since 1989
# 한라일보

제주골프회원권 거래전문
(주)탐라회원권거래소
TAMRA MEMBERSHIP EXCHANGE
문의 : 064)745-8884

漢拏日報 제8975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19년 10월 25일 금요일(음력 9월 27일)

**휴식 즐기는 원앙무리** 24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골프장에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원앙 200여마리가 올해에도 찾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오라관광단지 연내 사업 추진 '촉각'

### 자본검증위원회 오늘 제5차 회의 열고 종합 검토
### 자본조달 능력 등 결론 '권고'·'의견서'로 가닥
### 논의사항 많아 한 차례 더 개최 후 '매듭' 전망도

개발사업 사상 제주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오라관광단지 조감도. 한라일보 DB

총사업비 5조2000억원 규모의 제주 최대 개발사업이 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본검증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연내 사업 추진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도청 별관 2층 환경마루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자본검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27일 4차회의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를 통해 자본검증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선 현재까지 미지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자본검증위원회는 4차회의에서 사업자인 JCC 측에 분양수입을 제외한 투자금(3조3730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지난 6월 30일까지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JCC는 자본검증위 결정이 초법적인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이에 제주도는 현금예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JCC는 제주도에 공문을 통해 "사업 승인을 해주면 착공전에 1억불(약 1200억원)을 예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착공 후 입찰공사비의 50%를 시중은행에 6개월 예치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자본검증위는 JCC측의 자본 조달 능력 등과 관련 '적정' 또는 '부적정' 등의 결론을 '권고'하는 수준이나 '의견서' 제출 형태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이뤄져왔던 사항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는 등 논의사항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한차례 더 회의를 연 뒤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명품 빌리지와 같은 상업시설,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18홀의 골프장 등이 계획됐다.

이 사업은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시작으로 경관, 교통, 재해, 도시건축, 환경영향평가 등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투자금액만 5조2180억원에 달하고 중국계 자본이 투자하는 대규모 사업이어서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에서 사업자에 대한 자본검증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2017년부터 자본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제주경실련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오라 관광단지 개발은 자본검증이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의 재앙"이라면서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조상윤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NIE, 제주를 품다"

##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전시회

### JDC 주최·한라일보 등 주관
### 26~27일 학생문화원 전시실
### 작품전시·체험프로그램 운영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하는 NIE 전시회'가 오는 26~27일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린다.

제주지역 학생들의 비판·창의·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담아낸 NIE(Newspaper In Education·신문활용교육)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NIE 전시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도움을 받아 (주)한라일보사와 제주NIE학회 공동 주관으로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JDC가 주최하는 올해 전시회는 'NIE, 제주를 품다'를 주제로 다양한 NIE 작품과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올해 한라일보가 진행한 '2019 NIE 공모전' 수상작과 지면연재물을 비롯해 제주NIE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주NIE대회' 수상작 외에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해 완성된 학생들의 활동작품들을 선보이게 된다.

주제전시공간에는 제주이슈를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고 고민한 흔적이 담긴 작품과 도민신문활용교육, NIE 청소년·학부모교실 등 다양한 교육사업의 결실이 전시된다.

체험공간은 신문으로 만든 오목판 위에서 펼치는 바닥오목 게임과 제주 현안에 대한 관심을 체크해보는 '제주이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외에 '나는 뉴스메이커-이슈를 소개합니다' '날아라 제주잠자리'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전시회 개막식은 26일 오전 11시 열리며, '2019 NIE 공모전'과 '제7회 제주NIE대회' 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전시 관람 및 체험시간은 첫날인 26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둘째날인 27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신중년의 인생 3모작 지원합니다"

### JDC, '이음일자리 플러스' 사업
### 일자리 연계 취·창업 교육 지원
### 70명 선발예정… 28일부터 접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일자리와 연계된 취·창업 교육을 통해 신중년의 인생 3모작 지원에 나서고 있다.

JDC는 'JDC 이음일자리 사업' 참여 및 일반 신중년층의 일자리 연속성을 위해 'JDC 이음일자리 플러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중년층의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JDC 이음일자리 플러스'는 JDC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한다.

JDC는 이번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20명 ▷제주생태관광 매니저 양성 30명 ▷치매예방지도사 양성 20명 등 70명을 참여자로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JDC 이음일자리 플러스 사업'의 참여 대상자는 'JDC 이음일자리 사업' 현재 참여자 및 경험자를 우선 선발하고 일반 신중년(50~70세)도 참여 가능하다. 2020년에는 일반 신중년의 참여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11월 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JDC 홍보협력실(064-797-5764),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064-710-4504),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064-753-8090)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